

민천일보

제2849호

연중 제29주일

2024년 10월 20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옹현동 성 요셉 본당>, 1963년 설립

입당송 |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
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 1-5

화답송 | 시편 98(97), 1, 2-3 그리고 3, 4-5-6 (2 참조 또는 3 그리고)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 9-18

복음 환호송 |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 16-20

영성체송 |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주의 **녹색순교**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소리주보 QR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발현하시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떠나가시면서 신신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뜻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파되는 차원을 넘어 실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끝 날까지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 마칠 때까지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마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경은 가장 짧은 기도지만 가장 힘이 있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진심으로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제어하실 때, 병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축복을 해주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따르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까지도 허락하실 정도였습니다.(마태 9,38-40 참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르 13,13 참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8)라고 설교를 해서 첫 번째 신자로 삼천 명가량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의 태도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기에 교만함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섬길 것을 주문하셨습니다.(루카 17,7-10 참조)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천사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고 사람은 겸손 때문에 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콜로 3,13:16-17)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생애에 걸쳐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도록 함께해야 합니다.



김선호 루카 신부
가톨릭음악원 원장, 전례음악연구소 소장

성지에서의 기도

교황 성하께서는 2018년 ‘성지 담당 사제와 사목 종사자 국제회의’ 때에 하신 연설에서, 축복을 청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성지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지를 풍요로운 곳이 되게 합니다. 대중 신심은 하느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언제나 자양분을 얻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성지 담당 사제와 사목 종사자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8.11.29.).

거룩한 장소에서 바치는 기도는 그 깊이를 더하고, 그 기도의 메아리는 기도하는 이에게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이 자라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의 문을 열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존재하지만, 그 문은 나의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본 진리들을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곤경과 시련이 따라도, 어려운 나날이 이어져도, 삶은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먼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이에게 거듭하여 말합니다”(수요 일반 알현. 2020.5.20.).

화해와 희망의 자리

그러하기에 성지에서 희망은 낯선 것이 아니라 친숙한 말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옷을 입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지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리라는 희망을 통하여 믿음이 지니는 특별한 가치, 곧 믿음은 생명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여 줍니다.

성지는 그곳을 찾는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청하기 때문입니다. 성지는 우리가 눈을 들어 역사 안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현존을 바라보게 하여 줍니다. 성지를 찾는 순례자는 흔히 자신이 기도 안에서 청하는 것에 관한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선의의 열망이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목 활동은 순례자들이 현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가 희망에 힘입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는 정처 없이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길을 나서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열망, 마음속 염원을 성취하려고 희망하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러 한계를 넘어갑니다.

우리의 사목 임무는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루신 화해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존재 전체가 희망으로 환하게 밝혀졌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파편적이고 물음표투성이인 삶의 어두운 굴곡에 그 희망이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 성지는 우리의 기도 지향을 성인들의 전구에 맡겨,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주님께서 그 지향을 들어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성지는 참으로 귀중한 기도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는 당신 자녀들의

▶▶ 4면으로 이어집니다.

간청을 듣기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우리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 주는 징표들 — 기원 예물, 초, 신심 관행 등 — 로 가득합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필요를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 흔히 성지는 교구의 큰 ‘고해소’가 됩니다. 성지에는 사제들이 언제나 상주하며 참회자의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해의 성사를 통하여, 비유 말씀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올 한 해 동안 순례자들이 이러한 장소들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은총을 인식하고, 고해소에서 온 세상을 위한 참된 ‘하느님 자비의 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순례자가, 아버지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휘황찬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빕니다.

· 희년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해에, 우리는 참으로 이 기도의 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상황에 풍성한 영적 은총이 흘러넘치는 화해의 해가 되기를, 특히 수많은 악행과 고통 앞에서 희망이 스러진 듯 보이는 지역 상황과 전 세계 상황에 풍성한 영적 은총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특별 지향을 바치도록 초대받습니다.

· 2025년 희년을 준비하는 2024년 ‘기도의 해’ 사목 자료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인천교구 성지

- 제물진두 순교 성지
인천 중구 제물량로 240
- 갑곶 순교 성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 1366번길 35
- 진무영 순교 성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1, 강화 성당 내
-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741번길 107
- 이승훈 베드로(요) 성지 기념관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43
- 성체 순례 성지
인천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29-12
- 성모 순례지(성모당)
인천 동구 박문로 1 인천교구청 내
- 순교 신심 순례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54번길 66, 백령 성당

갈갈수녀님



정오하

넌리 이로운 씨앗이 도게 해주세요

25년 근속 교리교사 수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검단동 본당 초등부 교리교사 | 이기자 안나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교리교사로 봉사한 후 참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행복하며 은혜로운 날들이었음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교리교사로 지내온 시간 속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성장하여 청소년 미사에 참여하고 교리에 참여하며 단체 활동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동료 교리교사로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미소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교리교사를 하며 기쁘고 행복할 때가 많아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힘들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 의탁하며 묵상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곁에서 바라봐 주는 어린이들과 동료 교리교사들로 인해 마음을 다 잡던 저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제 손 잡아 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 한 주를 맞이하며 티 없이 순수하고 해맑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 더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한 장 행복의 일기를 써 내려갑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이며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교리교사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하늘에 보화를 쌓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귀한 보석들입니다.

하느님의 보석인 선생님들 삶 안에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안내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접해보세요. (QR코드로 친구 등록 가능)

1.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정보 제공
2. 정기적인 참여형 이벤트 운영
3. 청소년 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신청
4. 재단 후원 및 기타 문의 사항 응대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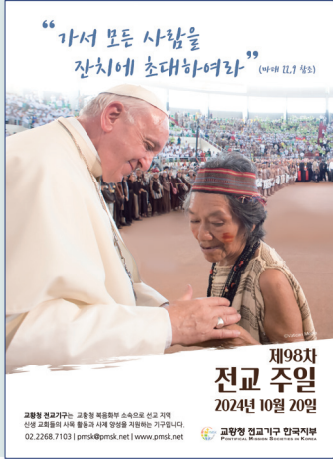


제4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 (이사 40:31 참조)

일시 11/24(주일) 15:00 보니파시오 대강당
신청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관람 가능
문의 032-765-6964



| 교구 안내 | 제98차 전교 주일

“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마태 22,9 참조)

10월 20일(연중 제29주일)은 전교 주일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선교 사명은 모든 이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적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가서 초대하여라!' 주님의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러 끈기 있게 나아가는 선교 사명
2. '혼인 잔치에' -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이 지니는 종말론적 차원과 성찬의 차원
3. '모든 사람들' - 시노드 정신을 온전히 살아가며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닌 보편 사명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4년 제98차 전교 주일 담화 중



교 구 청

2025년 회년 순례 참가자 모집

일시: 7/26~8/9 교구 청소년·청년

9/20~10/4 교리교사

장소: 로마, 토리노

문의: 032-765-6964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일시: 10/23(수) 10:00

장소: 산곡동 성당

문의: 032-765-7255 생태환경사목부

17차 가톨릭 약혼자 주말

일시: 11/15(금) 20:30~17(주일) 16:00

일시: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예비(신혼)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550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12/1(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학술연구발표회

사제성소, 함께 나누는 고민

-“인천교구 사제양성 실태조사”의 해석과 대화

일시: 11/1(금) 10:00

장소: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후원: 교구 성소국

문의: 032-930-8014 복음화연구소

열린강좌-비폭력대화법(NVC기초)

비폭력 대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시: 10/27 14:00~17:00

장소: 동암 노동사목센터(참가비-무료)

주최: 가톨릭 노동 장년회

접수: 032-432-5771

25 회년맞이 특강-희망을 희망하다

“시, 희망을 읽다”

“철학과 음악, 희망을 듣다”

“그림, 희망을 보다”

일시: 10/24~11/7 매주(목) 19:30 [3강]

장소: 사랑의 힘 지하 강당(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강사: 김기석 목사, 최대한 신부, 장동훈 신부

문의: 02-333-9898 한국CLC

인천ME 464차 주말

일시: 11/8(금)~10(주일)

장소: 강화 갑곶성지

문의: 032-761-1015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전례와 신앙체험_미사를 중심으로

일시: 10/28(월) 14:00~16:00(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무료)

강사: 예수회 구정모 신부

문의: 02-705-4711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일시: 10/26(토) 14:00~27(주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유명강사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참가비: 2만원(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11/15(금)~18(월), 12/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평정

일시: 매주(화) 12:30~16: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강사: 10/22 이상기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11/3~6, 18~21, 24~27,

12/1~4, 25/3/1~4, 9~12

생태순례: 11/9~11, 14~16, 12/7~9, 13~15,

12/30~25/1/2(연말연시/한라산)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한라산 눈꽃 산행 접수 중)

자연순례: 11/21~23, 12/1~3, 6~8, 14~16

연말연시(한라산, 해돋이, 해돋이):

12/29~25/1/1

추자도 포함: 11/16~19, 25~28, 25/3/13~16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2차] 11/8(금) 15:00~9(토) 13:00

공지영 작가

[3차] 11/15(토) 15:00~16(주일) 13:00

김탁환 작가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9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 상담)

일시: 10/21(월) 13:00~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 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일시: 11/1~3, 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서강회 임마누엘 신부 은경축 축하 미사

일시: 10/27(주일) 10:00

장소: 검암동 성당

문의: 032-568-8339 사무실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10/26(토) 11:00

장소: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10/22(화) 11:00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파티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 (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터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반**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하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부개2동 성당 추모관 위패 신청자 모집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가능(타 교구 신자 가능)

돌아가신 분은 타 종교, 무교 상관없이 가능

일시: 매월 2, 4번째 주(수) 10:00 미사

(위패 연령을 위한 개별 미사 지향)

신청금액: 1명(2백), 2명(2백), 3명(3백), 4명(4백)

살아 계신 분도 신청 가능

문의: 032-505-2048

부평3동 성당 사무장 모집

서류: 이력서(한글, 엑셀 가능한자),

본당사제 추천서

문의: 010-9769-8403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신청 방법: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학교설명회

일시: 10/31(목) 18:30

장소: 박문여고 2층 강당

솔샘나우리센터(심리정서치료)

놀이, 모래놀이,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청소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 1회]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입학전형: 12/2(월) 14:00

원서접수: 11/4(월)~15(금) 17:00

문의: 02-3147-8156 대학원 교학팀

02-3147-8664 조교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1차] 10/28(월)~11/28(목) 17:00까지

[전기2차] 25/1/6(월)~23(목) 17:00까지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

62학점(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법,

88학점(수업료 50% 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

https://gscl.catholic.ac.kr/gscil/index.do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요금: 1만원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평신도

문의: 010-3365-2925 일반인반

010-6252-4878 직장인반

순례 | 기타**해외 성지순례**

12/2 출발: 성 김대건 성지 롤롬보이,

마나오그 성모발현성지 [5일]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3/14 이태리 수도원 순례 및 명소탐방

[12일] 560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25/2/10, 3/17 이탈리아 일주 (히년 전대사)

25/2/11, 3/25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25/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참고 www.catholictravel.co.kr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25 히년 희망의 순례자들

25/3/1~9 로마 4대 성당 [9일]

25/3/3~14 이탈리아, 스위스, 루르드 [12일]

25/5/15~27 스페인, 파타마, 루르드 [13일]

문의: 010-6322-0293

www.nts2300.co.kr

해외 성지순례

25/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성지순례 [10일]

라파엘 특선(동반자 100만원 할인)

25/1/17, 2/14, 3/14 출발: 시칠리아 몰타 [10일]

25/1/15, 2/11, 3/11 출발: 포르투갈 일주 [9일]

25/3/26 출발: 이태리 일주(히년 전대사) [9일]

문의: 02-778-8565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성소모임**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일시: 10/26(주일) 9:00

장소: 서울 분원(서울 장충동)

문의: 010-8353-2323(문자 문의)